

서남권·F1특별법 국회 소위 상정

지역 정치권 정파 초월 통과 힘모아야

‘서남권특별법’(서남권 등 낙후지역 발전 및 투자촉진 특별법)과 ‘F1특별법’(포털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각각 상정됐다.

그러나 법안 상정 과정에서 전남지역 정치권은 사분오열된 현주소를 반영하듯 전혀 공조를 이루지 못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전남도의 자세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선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은 전남 지역 정치권의 공조 체계다. 서남권 특별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초 정부 입법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발의가 효과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정장선 의원이 대표 발의, 52명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했다.

출발은 좋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서남권 특별법이 전남 서남권을 집중 개발한다는 점에서 타지역 의원들의 눈길이

사분오열... 한 목소리 못 내고 관망·방관 전남도 소극적 자세 버리고 발로 뛰어야

곱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 건교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범여권 의원들도 법안 상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원도가 지역구인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왜 전남만 낙후지역이냐’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 윤두환 간사도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법안 상정에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전남지역 정치권은 현안 해결을 위한 발 빠른 공조 움직임을 보이지 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다. 대선을 앞두고 전남지역 정치 지형이 민주당, 열린우리당, 무소속, 중도통합신당 등으로 분화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조체계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있는 정치적 구심점이 없어 대부분의 의원들이 ‘내 지역구도 아닌데 신경 쓸 것 있느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서남권 특별법은 건교위 중도통합신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과 조일현 위원장을 며칠 동안 쫓아다니며 읊소를 거듭한 끝에 겨우 상정됐다.

이 같은 현상은 F-1 특별법의 국회 문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초 21일 법안 상정이 예상됐으나 법안심사소위위원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 간사가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수 없다고 버틴 것.

이에 따라 F-1 특별법의 법안심사소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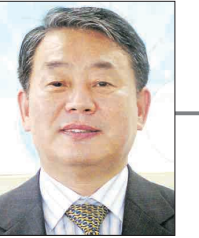
정은 상당기간 연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유선호(영암·장흥) 의원의 막판 호소로 간신히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여기에 전남도의 소극적인 자세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전남도가 지역 현안에 대해 정보 형식의 협조 요청만 하고 국회와 부처를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지역 현안이 발생하면 부지사나 부시장이 서울에 상주하며 담당 국장 등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국회와 정부 부처를 방문, 타지역 의원들과 담당자들을 사실상 세뇌(?)시키는 것에 비하면 전남도의 자세는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남지역 모 의원은 “전남도와 영남권 광역자치단체의 현안 해결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전남지역 의원들에게 현안을 던져놓는 것도 좋지 않음 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파리 BIE 총회 참관기

신국호



지난 19일 끝난 제141회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는 우리가 2012 여수 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한 자리였다. 회의 기간 내내 ‘코리아, 여수’는 환호와 감동을 몰고 다녀 사실상 이번 총회의 주인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국과 여수에 대한 호령은 지난 18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도시에 대한 심사결과 발표부터 19일 프레젠테이션까지 그칠 줄 몰랐다.

한국은 심사결과부터 모로코(탕헤르), 폴란드(브로츠와프)를 크게 앞섰다. 무엇보다 여수박람회의 주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전 인류에게 불어 닥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의 큰 공감을 불러왔다.

또 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 정부

대륙과 이슬람권에서는 처음 세계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준비 상황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이었다. 모로코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제를 소개 부분에서도 조목조목 설명하지 못했고 개괄적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다소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모로코는 프레젠테이션의 내용과 기법에서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였다. 주제인 ‘전 세계 문화의 교류와 화합’을 이해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콘텐츠보다는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탕헤르의 지리적인 여건과 관광자원 소개에 치중했다. 동영상 또한 평면화로 일관해 세계 최고 IT기술을 구사한 우리나라보다 시선을 끌지 못했다. 폴란드는 레흐 바덴사 전 대통령을

환호와 감동 주인공은 ‘여수’ 박람회 유치 자신감 얻었다

와 여수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제시되고, 지난 4월 실사에서 보여준 여수시민들의 상상기 어려운 열기는 심사결과 보고서에서 “Excellent”(엑셀런트·탁월하다)라는 극찬으로 되살아났다.

19일 진행된 유치 경쟁국들의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과 여수는 세계박람회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정보통신(IT)기술을 접목해 수려한 풍경과 고유의 전통미를 적절하게 결합시켜 여수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참석자들은 “원더풀”을 연발했다.

특히 한국은 프레젠테이션에서 비취색 바다를 뿜내는 여수의 아름다운 경치와 가야금 4중주단의 이국적인 선율이 어우러져 회원국 대표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한덕수 총리를 단장으로 한 고위급 유치단을 파견한 것도 크게 어필했다. 유엔민(중국) BIE총회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에서 총리까지 참석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별히 한국 정부의 유치 의지를 높이 샀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처에 비해 모로코와 폴란드의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떨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다.

모로코는 심사 평가에서 아프리카

내세워 교섭활동을 벌였지만 역시 우리에게는 필적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었다.

장외대결도 한국의 압승이었다. 회의장 주변에 설치된 여수세계박람회 홍보판에는 한복을 예쁘게 차려입은 홍보도우미가 각국 대표단에게 친절하게 준비 상황을 안내해 북새통을 이뤘다. 한국 홍보관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가미해 여수박람회 준비 상황을 안내함으로써 BIE 관계자뿐만 아니라 회의장 주변 방문객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BIE총회가 세계박람회를 위한 외교무대라는 점에서 실사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이 가장 잘했다”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여수의 교통과 숙박시설 부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한국 대표단은 내심 걱정도 했지만 2012년 까지 착실하게 보완한다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따라서 이번 총회를 통해 다져진 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외교전을 벌인다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전남도 국제관계 전문대사)

프레젠테이션도 우위

한국 첨단 IT기법 활용 주제 부각

BIE 관계자 면담 등 득표전 나서



2012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청한 한국은 18, 1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폐막 직후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유치전을 벌였다. 여수는 19일 총회 폐막 직전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모로코, 폴란드에 비해 우위에 선 것으로 평가됐다.

프레젠테이션 = 총회장인 팔레 드 콩그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프레젠테이션에서 3국은 각기 유력인사들을 출출동시한 가운데 3D, 플래시 등 첨단 IT기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각기 독특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막판 표심잡기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기후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영상화면을 보여주면서 여수 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의 시의 적절성을 부각시키면서 플래시 등 첨단 IT기법을 심분 활용해 IT강국 한국의 감점을 강조했다.

BIE 관계자 면담 = 한 총리는 BIE총회 폐막 다음날인 20일 여수박람회와 관련, “전남은 물론 남해 등 경남지역도 독자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개발함으로써 동서화합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숙소인 파리 시내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BIE 우 진민 총회의장과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을 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한국대표단이 19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여수박람회 유치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박람회 개최되면 관광객들이 전남 뿐만 아니라 경남지방 등 주변 관광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뜻을 BIE 고위관계자 면담에서 전했고, BIE 의장 등도 상당히 공감했다”고 말했다.

외교 활동 = 정부는 이번 BIE총회에서 여수박람회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보고 남은 기간 총력 외교전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대표단은 20일 파리에서의 여수박람회 유치 외교전을 마무리하고 대륙별로 영향력있는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한 개별적인 교섭에 들어갔다.

한덕수 총리는 20일 오후 체코 대사 면담을 마지막으로 개별 면담 12개국, 오·만찬 16개국 등 파리에 주재하는 28개 BIE 회원국 대표들을 상대로 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정부 대표단인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로에 일본을 방문, 박람회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조중표 외교통상부 제1차관도 20~23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연쇄 방문, 여수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 유치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사계절 양산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단위: 원)

내장일기준	할인금액	비고
5일전부터	1만원 할인	홈페이지 예약 잔여타임에 한함
3일전부터	2만원 할인	
1일전부터	3만원 할인	

홈페이지: <http://www.hpdynasty.co.kr>